



안전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현장

-IG건설 IG용산 에클라트현장-



▲ 류병두 소장

올 해는 참으로 많은비가 내린다.비에 대한 특별한 감상에 젖어 들기 전에너무자주내리는비 때문인지지겹다는느낌이 엄습한다.

얼마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로 많은 사람들이 처참한 피해를 입었다.오늘 찾은 현장에도비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나하는 걱정 앞에,오늘취재가현장에 괜한 시간을 빼앗지 않을까하는마음에 조심스럽게 IG건설 IG용산 에클라트현장(소장 류병두)에 들어섰다.그러나 크레인의 활발한 움직임과 활동력 있는 현장 분위기에서 철저한 대비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며,괜한 걱정을 했구나하는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오늘 찾은 IG용산 에클라트현장은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2005년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현장으로 아파트 3개동 310세대, 오피스텔 2개동 995세대를 건립하고 있다.또한 이 현장은 IG건설 주택부에서 처음 시공하는 초고층 현장으로 현장 사람들의 마음 가짐이 특별하다. '안전하게, 꼼꼼하고 정확하게, 기능에 맞고 튼튼하게' 라는 마음으로, 서울을 상징하는 남산



과 마주하여 시공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곳 사람들로부터 옛 장인정신이 느껴진다.

복리 후생에서 시작되는 안전

이 곳 현장을 총지휘하고 있는 류병두 소장은 건설경력 28년, 특히 현장을 총지휘하는 소장으로서 지금까지 단 한건의 중대 재해도 없었다고 한다. 이는 전 현장인 “수지 IG빌리지 3차아파트” 현장에서 600만시간의 무재해 준공에 이어 현재까지 무재해 달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 현장에서 무재해 준공을 이루겠다는 류병두 소장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

무재해 준공을 위해서 이 곳에서는 제일 먼저 기본과 원칙 준수,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강조한다. 기본과 원칙은 근로자

의 안전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이고, 복리후생 증진은 자율안전 정착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복지증진을 중요시 여기는 것에 대해 류병두 소장은 『근로자는 나의 친구, 후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투자하는 것에는 결코 아까울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배려하는 정책은 최선의 안전활동으로 오히려 장려하여 더 많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사전 위험인자 제거

류병두 소장은 시공중 안전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위험인자를 제거할 수 있는 사전안전성에 대한 분석과 확보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비좁은 현장 여건상 지하층 토공사를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므로, 골조공사, 토공사, 가시설 흠막이 공사가 동시에 병행됨에 따라 낙하 및 추락 등 재래형 재해가 상존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근로자와 현장의 모든 장비의 동선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중 비좁은 현장 여건상 야적장에서 야기 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없애기 위해 야적장을 현장 외부의 장소에 확보·운영하는 것이 그 중 하나의 방법이다.

현재 이 현장은 IG건설 주택부분에서 30층이 넘는 초고층 현장으로 시공시 추락 위험을 염두해 두고 있다. 그래서 현재 재래형 재해 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에 대비한 계획 수립이 완료된 상태이다. 그 중 건설 재해가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중대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서 CangForm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과 작업 편의성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E.V.피내의 골조 작업시 set화된 전용 form을 적용한 것으로 ACS발판이 설치된 시스템인 CangForm이 그것이다.

자율안전문화 정착

안전은 현장에서 일할 때 불편한 것이 아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한 직장생활이 필요조건인 것이다.

이는 어느 누가 강압적으로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고 안전한 시설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가 내자신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율적인 안전문화의 정착이다.

이를 위해 IG건설이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바로 운동』이 그것이다.


『제 때, 제 자리에, 제대로 된 방법으로』라는 뜻으로 작업을 한 후 자리가동전에 모든 것을 정리 정돈한 후 이동하고, 내 자신이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조정함으로써 근로자 각자가 생활 속의 안전을 키워가는 운동속에서 IG건설의 안전문화는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맺은말

IG용산에클라트 현장은 안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합리적인 현장이라고 이광수 대리는 말한다.

안전이 있고 품질이 있으며, 모든 것에 있어 안전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지는 안전시공이야말로 합리적인 운영이라고 부연 설명한다.

류병두 소장 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 모두가 무재해 준공을 바라고 있고, 건강한 직장생활과 삶을 영위할 줄 아는 슬기로운 이 곳 사람들은 무재해 준공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 2005년 12월에 현실로 나타낸다는 의지가 강하다. 

〈최중덕 기자〉

